

# 유방암 등 표적항암제 개발 착수



C&C신약연구소와 라이선스 계약 STAT3 타겟, 모든 물질 권리 획득 표준요법 대비 높은 유효성·안전성

JW중외제약은 자회사 C&C신약연구소와 차세대 표적항암제의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JW중외제약은 C&C신약연구소에서 발굴한 STAT3을 타겟으로 하는 ST-2286(코드명) 등 관련 모든 물질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STAT3은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 전이 및 약제 내성 형성에 관여하는 다수의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단백질(전사인자)이다. ST-2286은 STAT3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혁신신약 후보물질로 삼중음성유방암을 비롯해 위암, 대장암 등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한다.

C&C신약연구소가 진행한 전임상 시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ST-2286은 STAT3에 대한 우수한 선택성이 확인됐으며 STAT3 활성을 바이오마커로 갖는 다양한 고형암종에서 기존 표준요법 대비 높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였다.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에 강력한

효능을 나타냈다.

JW중외제약은 오는 2023년 임상 1상 시험 개시를 목표로 STAT3 표적항암제에 대한 비임상시험과 약물 생산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STAT3이 종양의 발생과 성장, 전이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STAT3 표적항암제 개발은 아직 성공 사례가 없다”며 “ST-2286이 다양한 세포주와 동물모델에서 단독, 병용요법 모두 뛰어난 항암효과가 확인된 만큼 미중족 수율을 해결하는 혁신신약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정관장 굿베이스, 착한 전기식 라인업 강화

건조효모·해조칼슘 등 건강한 소재 하루 영양 밸런스 고려한 영양소 섭취 식약처 GMP 인증받은 시설서 제조



굿베이스 에센셜 케어 8종. /KGC인삼공사

정관장이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정관장 굿베이스는 ‘에센셜 케어 8종’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비타민 3종(멜티비타민, 미네랄·비타민B·비타민D)과 유산균, 밀크씨슬,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K, 엽산, 철분 등 총 8종이다.

‘굿베이스 에센셜 케어’는 합성합료, 착색료, 감미료, 식품첨가물까지 빼고 꼭 필요한 영양소만 담은 ‘착한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다. 주원료뿐 아니라 부형제까지 식품첨가물 없이 건조효모, 해조칼슘, 인디안구스베리 등 건강한 소재만을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굿베이스 멜티비타민

미네랄 에센스’는 인디안구스베리 추출 비타민C와 건조효모 등 총 14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해 활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원료까지 과일채소혼합분말 12종과 같은 식물성 소재를 사용했다.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담겠다’는 브랜드 콘셉트처럼, 하루의 영양 밸런스를 고려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정관장이 보증하는 브랜드 ‘굿베이스 에센셜 케어’는 까다롭게 원료를 선별해 식약처에서 GMP 인증을 받은 우수제조시설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이다.

정관장 굿베이스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무첨가 식품에 대한 니즈를 반영해 식품첨가물을 배제하고 건강한 소재만을 사용하여 진정성 있는 제품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굿베이스는 정관장 흥삼을 만드는 기술을 바탕으로, 엄선된 건강한 소재를 활용하여 온 가족에게 필요한 건강 에너지를 전달하는 브랜드다. 대표제품으로는 흥삼 담은 석류, 흥삼 담은 매실스틱, 흥삼 담은 흑마늘 등이 있다. 최근 미스터트롯 이찬원을 모델로 발탁하여 제작한 ‘굿포배기’ 유튜브 동영상상이 600만 조회 수를 넘기며 화제 물이를 하기도 했다.

‘굿베이스 에센셜 케어’는 전국 정관장 매장 및 백화점, 대형마트 및 정관장물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원은미 수습기자 silverbeauty@

# 온 가족이 즐기는 ‘비오비타’로 재탄생

일동제약 ‘비오비타 패밀리 시리즈’ 고품질 원료 사용, 스스로 보호막 형성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유산균제 ‘비오비타’가 새롭게 태어났다.

일동제약은 22일 간편 유산균 브랜드인 비오비타(사진)가 리뉴얼 출시된다고 밝혔다.

비오비타는 일동제약이 1959년 국내 기술로는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영유아용 유산균 정장제다. 광고 속 카피와 징글송 등이 함께 각인되며 누구에게나 익숙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다.

일동제약은 최근 비오비타에 대한 리뉴얼을 단행, 영유아용인 ‘비오비타 배배’와 남녀노소 온 가족이 섭취할 수 있는 ‘비오비타 패밀리’로 구성된 시리즈 제품을 내놨다.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주요 유통 채널로 삼았다.

비오비타 시리즈는 핵심 원료인 낙산균을 중심으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익균을 비롯해 유익균의 먹

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비타민, 미네랄 등이 들어있는 ‘멀티바이오틱스’ 개념의 제품이다.

낙산균은 탄수화물을 발효시켜 낙산(butyric acid)을 생성하는 유익균이다. 장을 편안하게 하고 ‘황금변’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별도의 코팅 없이 스스로 보호막을 형성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며, 열에 강해 섭씨 90도의 열에 40분간 가열해도 90%의 생존율을 보이는 등 효용성이 크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일동제약은 유기농 원료와 국내 및 유럽에서 만든 고품질 원료를 사용했다. 또 합성합료, 착색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메틸셀룰로오스 등 5가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세경 기자

## 미닛메이드

### 칼로리 줄인 청포도 스파클링



코카콜라 ‘미닛메이드’가 청포도 과즙과 스파클링을 저칼로리로 즐길 수 있는 과즙스파클링 음료, ‘미닛메이드 스파클링 청포도 칼로리 10’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닛메이드 스파클링 청포도 칼로리 10’은 과즙 탄산음료 시장에서 저칼로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상큼함과 짜릿함은 살리고 칼로리는 낮춘 제품이다.

350ml 용량 기준 10 kcal이며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제로 슈거(Zero-sugar)다. 또한 청포도 과즙 특유의 상콤달콤함과 탄산의 톡 쏘는 스파클링으로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좋다.

패키지는 청포도를 시각화했다. 초록, 연두, 노란빛의 동그라미 패턴으로 청포도를 표현했으며, 제품 중앙에는 숫자 ‘10’을 명시해 저칼로리 특성을 강조했다.

‘미닛메이드 스파클링 청포도 칼로리 10’은 350ml 페트와 캔으로 출시된다.

/원은미 수습기자

# 메로나 시리즈 통했다... 한달만에 30만개 판매

뚜레쥬르 ‘빙그레 메로나’ 모티프



CJ푸드빌 베이커리 뚜레쥬르는 빙그레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모티프로 출시한 ‘메로나 시리즈’가 출시 한 달만에 30만 개 이상 판매됐다고 22일 밝혔다.

뚜레쥬르 ‘메로나 시리즈’는 국민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베이커리 대표 제품인 케이크와 빵에 적용한 쿨 브레드, 멜론 케이크 등 여름 한정 제품이다. 여름 대표 과일 멜론의 맛과 ‘메로나’ 브랜드의 통통 튀는 개성을 녹인 비주얼로 이색적이고 희소성 있는 아이템에 열광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출시 직후부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인기 요인은 바로 ‘편슈머’를 공략한 것이다. ‘메로나’의 익숙한 맛을 새로운 맛과 비주얼의 제품으로 탄생시켜, 소비 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편슈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 다시 유행한 ‘집에’ 올 때

로나’라는 신조어를 제품명에 활용한 것과 외형적으로 일반적인 빵과 케이크인데 메로나 아이스크림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점이 의외의 재미를 선사하며 열풍을 일으켰다.

생기발랄한 매력을 담은 패키지 역시 인기 요인 중 하나다. 패키지 자체를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디자인한 ‘얼려 먹는 메로나 아이스크림’의 슬라이딩 방식의 제품 패키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인증 동영상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패키지 곳곳에 그려 넣은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손에 든 귀여운 식빵 모양 캐릭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동국제약·아주 약대 바이오의약품 개발과제 선정

정부서 5년간 32억 지원

동국제약은 아주대 약대와 공동연구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도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맞춤형 진단 치료제품’ 분야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연구는 비침습 구강점막 전달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제다. 이번 과제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의 구강점막 전달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5년간 총

32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32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는 바이오 의약품에 지방산을 붙이는 ‘Fattigation 기술’을 적용해 그동안 시도된 바 없는 점막투과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동국제약은 도출된 물질의 비임상 평가 및 임상을 진행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이로써 구강점막으로 흡수 가능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 2024년에 임상(1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비침습형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면, 기존 주사제형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과점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롯데호텔 월드, 실속 호캉스 패키지 선보

정가 대비 최대 60% 할인

롯데호텔 월드가 여름철 쾌적한 호텔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2가지 실속형 호캉스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정가 대비 최대 60% 할인의 ‘삼시세끼 인 호텔’과 ‘레스토랑 어벤져스’다.

‘삼시세끼 인 호텔’ 커플링은 디럭스 룸 1박, 라세스 2인 조식, 도림의 2인

런치 코스, 호텔 지하 펍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의 치킨(혹은 스테이크)과 생맥주 2잔으로 구성했다.

패밀리형은 패밀리 트윈룸 1박과 라세스 3인 조식(성인2, 소인1), 도림 2인 런치 코스(소인 별도 추가 가능),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치킨(혹은 페퍼로니 피자 또는 국물 떡볶이)과 생맥주 2잔과 탄산음료 1잔을 제공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원은미 수습기자



삼시세끼&레스토랑 어벤져스.

/롯데호텔월드